

인천정유, 매각 주간사 선정 착수

인천지법, 김재옥 법정관리인 선임 후속조치 ... 원점 재입찰 실시

2005년 1월 타결 직전까지 갔다 무산된 인천정유 매각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정유를 법정관리중인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임기 만료된 한송호 사장 후임으로 김재옥 전 수원지방법원 상임관리위원을 새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한데 이어 다음주 초 주간사를 선정한다고 5월11일 발표했다.

인천지법은 7개 회계법인 등에 주간사 담당 의향을 타진하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다음주 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 중에서 성공보수 희망액과 노하우 등을 따져 주간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지법은 주간사가 선정되면 5월말 매각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 참가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인천지법은 인천정유의 최대 채권단인 미국 Citigroup 계열 자산유동화회사인 불루투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인수가격을 제시하면 다른 인수 희망기관들의 가격과 비교해 높은 금액을 주는 측에 매각키로 한 기존방침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입찰을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5/05/12>